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구원

욕심대로 살면 절대로 구원 안 돼

이 세상에는 하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들춰보면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는 것은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 변하여 하늘의 사람이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람 자체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면 양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쓰여 있지만 사실은 양질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마귀의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물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욕심을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승리제단에서 이슬성신을 내리도록 다른 사람은 다 이슬성신을 받는데 마귀의 사람만은 이슬성신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성신이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 고로 누가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양질의 사람, 즉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결코 그 사람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단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의 영이 믿음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 땅위에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고로 구원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이 믿음이고, 부활자요, 생명과일이라고 이 사람이 그랬죠? 또한 이긴자의 영이 생명과일이고, 믿음이 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가르쳐줬는데,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20년이 되도록 말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신이 알겠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중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돈 문제이고로 말씀을 하게 되면 새 식구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순종을 하지 않아도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구원이니 순종하지 않으면 절단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구세주 조희성님

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영생을 얻고 보야지 구세주가 왔는데도 영생을 못 얻는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기막힌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귀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구세주가 귀하다면 구세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한 번 말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있어 버리고 그 말씀을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역사에 보탬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고, 이제그대로 남이 잘못돼서 찢절때면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악인에 속한 사람인 고로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날이 가르쳐주고 있지?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미 벌써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고 대장 마귀의 힘을 입어서 내쫓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임태됐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실토했 거죠? 이렇게 성경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캐내어 알려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 간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속성이 있는데,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라야 마귀에게 다시 점령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는 안 쓰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인 승리자의 영이 영생의 영이니, 보통 하나님의 영은 영생의 영이 모든 마귀를 죽일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로 영원무궁토록 영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구세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쓰여 있는데 영생을 주는 영이 믿음이고로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영생을 주는 영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주는 영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인 고로 여러분들이 다 승리자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말씀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

만, 이것이 정확하고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리라."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온전자인 구세주라야 온전한 영을 부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소상하게 쓰여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깊은 내용을 말하는 걸 보아 틀림없는 구세주죠? 온전한 영을 20년 동안 부여하는데도 그 온전한 승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급매대기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었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생미르불이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따르라"고 석가모니가 말했다는 것이 불경에 쓰여 있는데, 생명을 걸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단코 영생의 관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기까지는, 이젠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애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구세주를 만났나!"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생애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조상이 전생애 고로 하나님께 잘한 조상님 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에는 3대째 적덕을 한 사람이 아니면 정도령을 만날 수가 없다고 쓰여 있는 고로 여러분들이 이 승리제단에 온 것은 조상대대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 자신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고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28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혜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9장 사사시대》

7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 ③



* 사사 삼손의 초기 활약 지명
답나/소라/마하네단/에스다울/
아스글론/레히/에담 바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중해 해변가의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경계선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북쪽은 에브라임지파와 경계선을 하고 있으며, 동쪽은 베냐민지파와 경계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파 기업 남쪽은 강력한 해양민족 블레셋과 대치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단지파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안보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물론 유다지파도 블레셋과 동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다(사사기 15장 12절). 이런 반역 행위를 보아 유다지파에는 블레셋과 싸울 용기도 없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제사장도 없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은 유다지파(76,5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인구 수(64,400명)에 비해 너무 작았

을 뿐 아니라(민수기 26장), 비옥한 단지파의 영토 안팎에는 강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 단지파 기업의 땅에는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의 그릇 자손이 가드림몬과 엘드게와 길브돈 그리고 아얄론 등 이렇게 네 군데의 목초지가 되는 성읍을 차 두었었다.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각 지파에 흩어져 성읍을 할당받아 거주해야 했는데(여호수아 21:1-42). 이는 아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창세기 49:7).

93세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단지파의 기업 땅에는 소래골짜기 북서쪽 에그론 평야도 포함되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는 단지파 백성의 절반 이상이 비옥한 에그론 평지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백성들은 에담과 답나 그리고 소라 땅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전차를 앞세운 블레셋 민족의 강한 저항으로 에그론 성읍에서 거주하던 수많은 단지파 백성들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소라 성읍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에 단지파 족장들은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만 했다. 그래서 단지파는 가나안 최북단의 라이

스 지방을 점령하고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개명하는 동시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추대했다. 이리하여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한 모세의 예언(신명기 33:22)이 성취되었다. 바산 지역은 오늘날 골란 고원으로 알려져 있고 갈릴리호수의 북동쪽에 있고, 갈릴리 지역의 최북단인 헬몬산, 텔 단(라이스 지방)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이다.

라이스 땅은 아주 넓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셨다고 성경 사사기는 전한다. 이제 단지파 백성들은 가나안 남쪽에서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이스라엘 12부족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라이스 지방으로 모조리 이주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단지파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 200년 동안 소라 성읍과 마하네단(단군영)을 중심으로 블레셋의 북진을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그런데 유다지파가 블레셋 민족에게 40년 동안 지배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사사기 13:1). 그리고 단지파 기업의 답나 마을까지 블레셋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소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